해남 땅끝~대흥사 4차선 확장을

30년된 2차선 도로 교통체증 극심

휴일 3만 여명 몰려 거대한 주차장

해남 대흥사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13일 대흥사 입구에서 2차선 도로 확포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전남의 대표적 관광지인 해남 땅끝과 대흥사를 연결하는 비좁은 도로가 관광객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78년 2차로로 조성된 해남읍 평동사거리~대흥사 입구 7.8km(지방도 806호선) 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휴일에는 하루 3만여명의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급커브 구간이 많고 도로폭마저 좁아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초의문화제가 열렸던 지난 3~7일과 연등축제 기간인 10~12일에는 이 도로 일대에서의 심각한 교통 정체로 관광 해남 이미지가 훼손됐다. 이같은 교통 정체는 관광객이 몰리는 매주 휴일만 되면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광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대흥사를 방문한 김연순(여·40)씨는 "해남읍에서 대흥사까지 가는 데 1시간이 넘게 걸렸다"면서 "땅끝까지 둘러보고 갈 계획을 세웠는데, 교통 정체가 심해 결국 포기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지역 상인들은 비좁은 도로로 관광객들이 해남을 다시 찾지 않는 등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남 대흥사 상인 연합회는 지난 13일 대흥사 입구에서 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2차선으로 개설된 도로가 30년이 넘도록 방치되면서 관광객 유치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도로 확장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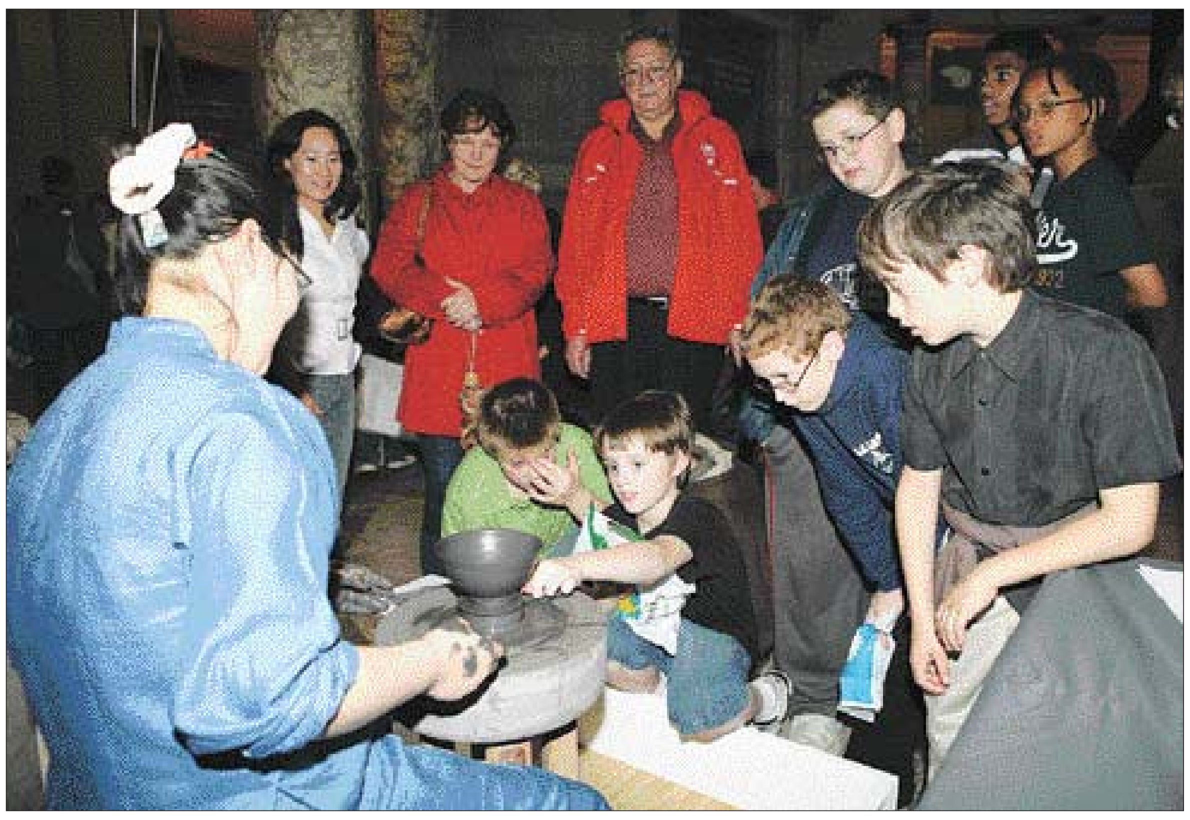
김성환 상인 대표는 "전남도와 해남군이 관광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은 없다"면서 "휴일에 대흥사를 찾는 방문객들이 심각한 교통정체 때문에 다시는 오기 싫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또 "대흥사 입구 도로는 전남의 대표적 관광지인 땅끝으로 가는 관문도로"라면서 "도로 확장이 늦어져 찾아오는 관광객을 내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남군은 지방도 806호선에 대한 4차로 확장 공사를 전남도에 건의했다.

김동화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있으나 4차선 확포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미국 어린이들 "강진 청자 만들기 신기해요" 지난 9일부터 미국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강진청자 미국 순회전에 현지인들이 청자의 제작 과정을 감상하고 있다. 미국 순회전은 오는 7월12일까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6개 도시에서 열린다. 〈강진군 제공〉

나주배 농협 이사회 '파행'

모 이사가 조합장 얼굴에 커피 쏟아 부어 회의 중단

나주배 농협 이사회가 특정인의 돌출 행동으로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13일 나주배농협에 따르면 지난 8일 개최된 조합 정례 이사회에서 A모 이사가 갑자기 조합장의 얼굴에 커피를 쏟아 부어 회의가 중단됐다.

이때문에 조합원 가입 승인 건 등 안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A모 이사는 이전에 열렸던 이사회 회의록이 규정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이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합의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로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물리적인 행동을 한 데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A모 이사의 경우 나주배 농협 이사를 맡기 전 봉황농협 이사로 있으면서 조합장과 마찰로 중도 사퇴한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조합 이사 선출에 대한 제도적 보안이 요구되고 있다.

해당 농협 관계자는 "A모 이사의 경우 동료 이사들과도 자주 마찰을 빚어 왔다" 며 "대의원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만큼 이사 자질에 대한 각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주배농협의 경우 이사 6명, 감사 2명 등 8명의 임원 및 조합장이 조합의 각종 정책을 결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동료 이사들이 A 이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대해 A모 이사는 "조합장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 고 해명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화순군 고인돌축제 읍·면 문화축제로

공설운동장서 개최, 군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화순군 대표축제인 '고인돌축제'가 오는 10월 가족체험 및 읍·면 전통 민속공연 중심의 문화축제로 치러진다.

화순군이 최근 확정한 올해 축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주무대를 기존 고인돌유적지에서 공설운동장으로 옮기고, 전 군민이 축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특히 기존 축제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 화순군 전체 13개 읍·면의 대표적인 지역 민속문화를 발굴·재현하는 민속 문화축제로 테마를 정했다.

또 고인돌 유적지내에 선사체험장을 운영하고, 선사생활 학습마당을 비롯해 축제기념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등 가족체험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이밖에 축제장소에 13개 읍·면 대표음식 먹거리 장터와 읍·면 특산품 판매 코너를 조성해 참가자 및 외지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고인돌축제는 장기적 안목에서 세계문화유산인 화순고인돌 홍보뿐만 아니라 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며 "올해는 개최장소를 옮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형 체험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변신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장성군, 저소득층 자활 사업

'한사랑 반찬가게' 1호점 개점

장성지역재활센터가 저소득층 자활사업으로 추진중인 '한사랑 식품사업'의 첫 결실이 맺어졌다.

장성군에 따르면 '한사랑 반찬가게'〈사진〉가 지난 13일 장성읍내에 1호점을 개점했다.

한사랑 반찬가게는 장성지역재활센터가 추진중인 한사랑 식품사업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 공동체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유기 농산물을 가공, 김치류·장아찌류 등 밑반찬을 만들어 판매하게 된다.

가게는 장성지역재활센터의 도움을 받은 저소득층 5명이 운영하고 수익금은 자활 공동체 창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사용된다.

장성지역재활센터 관계자는 "반찬가게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자활 근로사업 참여자에게는 공동체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성지역재활센터는 장성군의 예산지원을 받아 지난 2004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수리사업단' 등 6개 분야의 공동체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광주·전남 확산 '비상'

토마토와 고추 등 과채류를 비롯해 땅콩, 국화 등 30여종의 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토마토 반점 위조(萎凋) 바이러스(TSWV)'병이 광주·전남지역에 확산되고 있다.

TSWV병은 동그란 반점이 잎과 줄기에 이어 과실까지 확대돼 작물이 말라죽는 병으로 지난달 나주와 광주시 대촌동 등지에서 발생이 확인됐다.

특히 올해 봄철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돼 적극적인 방제 작업이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은 밝혔다.

/송기동기자 song@

엄지마을 꽃들의 잔치

17·18일 강진군 옴천면 영산리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된 강진군 옴천면 영산리 엄지마을 자운영 꽃밭에서 오는 17·18일 이틀간 '제 1회 엄지마을 꽃들의 잔치'가 열린다.

옴천면은 오염원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난 2003년 전 지역이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엄지마을 행사추진위원회와 1사1촌 자매결연을 한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이 공동으로 친환경농업을 홍보하고 도시민과 농촌이 어울리는 시간을 갖기 위해 열린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엄지마을 꽃들의 잔치'는 마을에 조성된 자운영 꽃밭에서 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 관리단 직원과 엄지마을 주민, 부녀회, 소방대원, 관광객 등 1천여명이 한데 어우러져 농촌체험행사와 체육행사 등을 통해 도·농화합 축제로 치러진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제 2회 광산 우리밀축제

24일 광산구 송산유원지

'제 2회 광산 우리밀축제'가 오는 24일 광산구 송산유원지에서 개최된다.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운동본부와 한국 우리밀농협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우리 밀의 역사와 미래상에 대해 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체험행사로는 밀 서리와 밀 추수를 비롯해 우리밀 새싹즙 무료 시음, 우리밀 퀴즈 등이 열리며 우리밀 주제 페이스 페인팅, 우리밀 케익 만들기, 우리밀 짚 공예 등 다채롭게 마련된다.

또 난타공연, 가훈 써주기, 한방체질 상담, 우리밀 먹거리 마당 등 각종 부대행사도 열린다.

이와 함께 수입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을 비교전시하며 우리밀 제품도 판매한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